

# Robert Chisholm 박사, 사무엘 상하, 사무엘 하, 세션 5, 사무엘 상 7

© 2024 로버트 Chisholm 및 Ted Hildebrandt

사무엘 상하를 가르친 Dr. Robert Chisholm입니다. 5과 사무엘상 7장 회개와 승리입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사무엘상 7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 회개와 승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목에서 이 장이 다소 낙관적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특정 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큰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이 장의 주제를 요약한다면, 회개와 주님에 대한 새로운 충성은 그분과의 새로운 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와 주님에 대한 새로운 충성은 그분과의 새로운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지난 3장에서 사무엘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주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북쪽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의 선지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남쪽에. 그가 예언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는 주님의 선지자로 확인되고 확증됩니다. 하지만 초반부에서 사무엘과 엘리, 그리고 그의 아들들 사이에 대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는 어느 정도 사라졌습니다. 사무엘은 주님과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고 재건될 미래의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며, 그들은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4장에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죽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레셋 영토로 내려가고 다시 벤세메스로 돌아가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방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무엘상 7장에는 사무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이 구절이 궤 이야기와 일치하므로 기랴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와 궤를 메어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져가서 그의 아들 엘아자르를 성별하여 여호와와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그럼 서론을 마치겠습니다. 내 생각에 장 구분은 아마도 그 절 앞이 아니라 그 절 뒤에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궤가 기랴여아림에 머물렀던 기간은 모두 2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주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슬퍼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그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가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주와 그 여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우리는 그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즉 진실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재떨이를 버리고 자신을 여호와께 맡기고 섬기라 오직 그 사람만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숭배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무엘상 후반부에서 사무엘은 그들이 바알을 포함하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민족의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다고 언급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아스다롯을 숭배하고 있는데 아마도 아스타르테라고 알려진 여신의 형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신들을 다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형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교적 사고에서는 신이 어떤 식으로든 와서 형상 안에 거주하고 신과 형상을 분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주 이야기에서 야훼가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주는 그분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살지 않으며 방주를 조종한다고 해서 그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께 의탁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했습니다. 그들은 바알의 우상, 아스다롯의 우상을 가져다가 버리고 없애고 오직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감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인 후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으니 그 날 그들은 금식하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고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문의 몇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통역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제시된 몇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들의 회개하는 정신을 상징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주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쏟아 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이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들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스스로 빼앗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우리 오늘은 물도 마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직후에 그들이 금식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얼마나 집중하고 성실한지 보여주기 위해 한동안 음식과 물을 끊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물을 가져다가 부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에서 사무엘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들을 위해 중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사무엘을 모세의 역할에 캐스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리라 말하였느니라.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그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나 역사적 전개에서 사무엘은 처음에는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민수기 21장 7절에 대한 암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사무엘상 7장에서 선언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새로운 모세라는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그리고 확실히 독자들의 눈에 그에게 엄청난 권위와 신뢰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초반부에서 중요한 주제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세요.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의 신뢰성은 본질적으로 사울을 직위에서 제거하고 다윗을 선택된 왕으로 기름부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권위를 갖고 있으며 그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에게 당신이 버림받았다고 말하고 다윗에게 당신이 주님의 새로 선택받은 통치자라고 말한 사실은 매우 중요하며 사무엘서에서 저자가 친다윗이라는 주제에 기여합니다.

여기 꽤 좋아 보이는군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방백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왔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은 젓먹이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더라.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오셔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며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백성을 구출할 것이라는 신탁을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전쟁 전에 주신 일종의 구두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그에게 응답하셨다고 말하고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중재할 때 모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사무엘의 중재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이것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매우 흥미롭습니다. 동시작업과 같습니다.

사무엘이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뢰를 발하여 그들을 크게 어지럽게 하시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패한지라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한나가 되기를 기도했던 바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치실 때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달려나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쳐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스인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는 Ebenezer Scrooge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가보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름도 때때로 성서에 유래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실제로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에벤에셀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움 아이디어입니다. 돌이 거기 있어요. 에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에셀을 갖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그가 우리를 도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돌은 미래 세대를 위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문하면 그것을 보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잖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에벤에셀이라고 명명한 것도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4장과 5장, 특히 4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벤에셀이라는 장소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던 것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은 다른 Ebenezer입니다.

돌을 다른 위치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4장에서 발생한 패배를 일종의 역전시키기 위해 사무엘에게 이 이름을 붙인 것은 흥미롭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역전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우렛소리를 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셔서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Samuel은 바로 여기에 새로운 Ebenezer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오래된 것을 취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굴복되었고 다시는 이스라엘 영토를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영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무엘상에 블레셋 침략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이 보다 즉각적인 맥락에서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반격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압도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의 성읍들이 그에게 회복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웃 지역을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트랜스요르단 지역에도 거주하는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힘을 인정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는 것이 더 낫다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평화가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에서 그는 우리가 사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건을 판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그의 아들들에 대해 조금 언급된 내용에 의해 암시됩니다. 그는 해마다 벳엘에서 길갈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앙 지역인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법적인 문제를 그에게 가져오며 그는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주님과 상의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는 늘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땅에 공의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 땅에 올바른 형태의 예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무엘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장, 즉 매우 긍정적인 장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다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을 치시고 그들을 패배시키실 때, 그것은 특히 이야기의 앞부분에서 일어난 일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무엘은 모든 우상을 제거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알들과 아스타르테 상징들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알에 관해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전 수업에서 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금 복습하자면, 그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는 비를 가져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작물을 원하고 많은 자녀를 원하면 바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Hannah가 거절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주님께 충성을 유지했고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 우상들을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알은 폭풍의 신입니다. 폭풍의 신으로서 그는 폭풍의 요소를 통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천둥과 번개를 다스린다. 사실, 이 가나안 문서에서 천둥은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바알의 거룩한 음성이라고 부릅니다.

의로움의 의미에서 거룩하지는 않지만 독특하고 다르며 구별되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바알은 천둥을 통해 말하며, 그의 적에 맞서는 강력한 전사로서 다가옵니다. 보세요, 폭풍의 신이 여러분 편이 되면, 그는 농작물을 자라게 할 수도 있고 폭풍의 요소를 사용하여 적을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폭풍의 신으로서 와서 천둥을 치기도 하고, 번개도 던지는 신입니다. 그리고 번개는 그의 창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에는 바알이 폭풍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알 우상을 버릴 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적들과 싸우러 오신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신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폭풍 속에서 그는 적에게 천둥을 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듯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말하더라도 바알이 폭풍을 주관하지 않으니 바알 우상을 제거하신 것은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나는 폭풍을 통제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내가 폭풍의 신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그것보다 더 커요. 그러나 그분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는 자연의 모든 요소를 통제합니다. 그분은 죽음에도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폭풍을 다스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해 폭풍 가운데로 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사사기와 사무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예입니다. 사사기에서 시작하여 사무엘서 첫 부분을 통해 계속되는 바알 신에 대한 뚜렷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에서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그 논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초반부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바알은 그들이 숭배했던 신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수형입니다. 그 이유는 바알 신이 전국 각지의 여러 성소에 모습을 드러내고 이러한 우상으로 대표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우상들 안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때로 바알을 언급하여 그것이 사람들이 숭배하던 형상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 뒤에는 신이 있습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4장은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고, 5장은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회상하며 쓴 시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는 바락에게 여호와께서 당신들이 나가서 싸우기를 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Barak의 이름은 번개를 의미하는데, 나는 이러한 맥락에서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저했습니다. 그는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선지자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그에게 기본적으로 주님은 당신이 가서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시스라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는 이 모든 병거, 수백 대의 병거, 철 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철로 튼튼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랬듯이.

그래서 그들은 특히 좋은 전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병거가 없습니다. 사실 주님께서서는 율법에서 너희가 병거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가서 싸우고 나를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전투에 나설 때 다소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면, 그것은 내가 당신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과 그의 군대는 가나안 사람들을 치러 나갔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병거들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큰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는 가나안 군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전투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5장에 나오는 시가 그 사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사사기 5장의 일부 구절을 읽을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 에돔 땅에서 행군하실 때, 여호와께서 남동쪽에서 시내산 방향으로 행군하시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가 거하시는 거룩한 산이니라.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쏟아지고 구름이 물을 쏟아내며 산들이 시내산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폭풍이 있었고 물이 내려왔다고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5장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별들이 싸웠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들은 코스에서 시스라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화에는 별이 때때로 비의 근원이라고 믿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을 대신하여 싸우는 천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었다고 말합니다. 오랜 강 기손 강이 내 영혼에 흐르니 강건하여 주소서. 그러므로 기손강에 돌발 홍수가 있었던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 에는 주님께서 바알과 같은 방식으로 폭풍우 가운데 오셔서 가나안 군대에 대항하여 자신이 폭풍우를 통제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폭우를 일으키셨습니다. 와디 키손(Wadi Kishon)이 갑자기 범람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폭풍우가 몰아치는 중에 돌발 홍수가 발생하면 전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에 나오는 대로,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도망쳤고, 이스라엘 백성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족속을 상대로 한 주님의 위대한 승리를 축하하는 것 외에도 여기에는 바알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조금 미묘할 수도 있지만 존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바알 숭배자들을 대면한 그의 백성들에게 폭풍을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자신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그들의 신 바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조금 후에 기드온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알 논쟁은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더 뚜렷하고 더 분명하고 직접적입니다.

기억하세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는 바알 제단이 있고 바알 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드온에게 그 제단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밤에 그 일을 합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밤에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 제단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드온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법이 당신이 하도록 되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제단을 헐고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

그는 주님께 순종하고 있으며 율법이 당신에게 하라고 말한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수업에서 이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지만 기드온의 아버지가 개입하여 그는 말합니다. 나는 우리가 바알의 전투에 맞서 싸워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의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싸움을 하게 놔두자. 아마 아들을 살리기 위해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는 우리가 그에게 예루브 바알(Yeruv Baal)이라는 새 이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예루브 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읽으면서 때로는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예루브 바알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나는 예루브 바알이 사용될 때 이것의 논쟁적인 차원을 좀 더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싸우게 하라는 뜻입니다. 바알이 분투하게 하라.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바알 신에게 도전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모두가 바알을 믿고 숭배하는 마을에서 자랐다면 적어도 감정적으로는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군대를 모아 나가서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다시 주저하며 시험을 해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슬과 양털을 가지고 이상한 시험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이슬을 통제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가 실행하는 몇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바알은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통제하기 때문에 바알 신화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이슬은 농업적 풍요의 원천으로 여겨지며 바알은 이슬을 통제합니다.

실제로 한 본문에는 바알의 딸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중 하나의 이름은 이슬이라는 뜻의 탈리아(Talia)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슬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의 딸 중 한 명의 이름은 그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는 전투에 임하기 전에 최근 기드온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바알이 통제한다고 추정되는 요소들을 정말로 통제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을성 있게 기드온에게 이 모든 것은 바알이 아니라 내가 통제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질문이 전개됩니다. 바알이 반격할 것인가? 그리고 보라, 기드온은 그의 삶을 살아간다. 그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는 몇 가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정말 잘 끝나지 않네요. 그러나 기드온의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바알은 반격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9장을 보면 기드온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그 아이의 이름을 내 아버지가 왕이시다는 뜻으로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기드온의 견해에 대해 무엇을 시사합니까? 이 소년은 첩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이 이복형제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왕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는데, 그것은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는 책임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왕이신 주님이 계시다고 경건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합니까? 그러나 그는 이 아내들과 아들들을 모두 모았으므로, 아비멜렉은 적어도 세겜 성에는 왕이 한 명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와 동맹을 맺고 바알 신전에서 이 작전에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분명히 바알 숭배자이고, 세겜 사람들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을 공부해보면 정말 헛갈립니다.

세겜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사람입니까? 나는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게 되면 족보가 정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일부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글썄요, 둘 다 거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는 어느 정도 혼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복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 그들을 죽였습니다. 당신은 이 아들들이 있는 과두정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군주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바알이 반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하자면 바알 숭배자인 아비멜렉을 통해 기드온의 아들들을 빼앗음으로써 기드온의 다산을 제거함으로써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어떻게 될까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충돌하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살아남은 유일한 형제인 요탐은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정의를 내려 주시고, 살해된 자기 형제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기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을 조성하는 악령을 보냅니다. 장이 끝날 무렵, 세겜 사람들의 성읍들은 불탔고, 나는 그 성읍들에 있었던 모든 바알 신전들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상하게도 여자에 의해 살해됩니다. 그가 벽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자 여자가 맷돌을 던져 그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리고 그는 죽어가지만 무기를 든 사람에게 그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여자가 그를 죽였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바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안하다 아비멜렉아, 여자가 너를 죽였다. 결국 자살은 그 사실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알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쳐서 반격했다면,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누가 승리할까요? 여호와께서 승리하시고 자신이 바알보다 우월함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바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일신론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오직 한분뿐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세계와 구약성경에는 유일신교에 대한 현대적 개념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교도 신들 뒤에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는 우상을 풍자합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일 뿐이고, 신들은 그들을 대표하는 우상보다 더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신들 뒤에 현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펼쳐지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계시를 받게 되면서, 우리는 높은 곳에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로서 치르는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인간 적들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영적인 세력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성서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당신은 다니엘서에서 그것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리스 왕자와 페르시아 왕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인간 왕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천사 중 하나인 미가엘과 싸우고 있는 천사의 세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교 신들 뒤에는 영적인 힘이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말하자면 바알과 전쟁을 벌이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더 큰 정경적이거나 성경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것은 실제로 권위를 위임받았으나 반역하고 어두운 면으로 변한 사탄과 천사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 국가의 숭배자들을 노예화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 모압의 신 그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격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압 마을을 점령하는 것을 단념해서는 안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알 논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삼손에 이르렀을 때 논쟁은 도곤에 대한 것입니다. 도곤은 우리가 이전 수업에서 말했듯이 다산의 신인 바알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대적하시느니라. 그런 다음 우리는 사무엘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본 것은 한나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서 자신을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축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처럼 아이를 갖기 위해 바알 숭배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신뢰했고, 주님은 결국 그녀에게 그 아들을 주시고 그녀를 옹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찬양 노래에서 바알에 대한 논쟁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전 수업에서 살펴보았던 것에 대해 지적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거룩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Hannah는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삶과 죽음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앞서 우리가 나눈 바알에 관한 토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알은 두 명의 주요 적, 즉 그가 물리친 바다의 신 얌과 죽음의 신 모트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폭력적인 투쟁이 있는데, 바알은 실제로 한 번 패하여 죽은 자의 세계로 내려가야 합니다. 못을 죽인 아낏의 도움으로 부활하지만 못이 다시 나타나고 바알과 못이 다투는 것은 계절적 상황을 반영한다.

바알이 다스리면 모든 일이 적절한 때에 일어납니다. 비가 적절한 때에 오고, 모든 것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가뭄이 있을 때, 그것은 신들의 세계에서 바알이 패했고 지금은 모트가 지배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주님은 결코 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죽음이 원수일지라도 주님은 항상 죽음을 다스리시며 한나는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주님은 삶과 죽음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바알에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도 논쟁적인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생명과 다산에 대해 주님을 믿었고 주님은 스스로 입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적들에 대해 천둥을 치시고 그의 기름부음받은 자를 변호하실 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왕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주님은 그의 적들에 대해 천둥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한나 이야기에는 바알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앞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를 그들의 성전으로 데려갔을 때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어떻게 굴욕을 당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 논쟁적인 차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사무엘상 7장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바알 우상을 버리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이 토론의 앞부분에서 지적한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기본적으로 매우 현명한 결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폭풍을 통제하고 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천둥을 치며 그들을 물리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인 사사기와 사무엘상 전반에 걸쳐 주님은 자신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이 이교 신 다곤과 바알보다 무한히 우월하시다는 것을 그의 백성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문화적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블레셋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너무나 많은 패배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판사.

그들은 패배했고, 이들 외국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영적이지 않고 당신이 패배하는 진짜 이유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신이 우리 신보다 더 강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와 사무엘은

아니다, 아니다, 너희가 패하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벌하시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렇다고 이 신들이 주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숭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 이는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벌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이 모든 신, 다곤, 바알, 그리고 그 모든 신들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논쟁의 목적입니다. 회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 사무엘상 7장의 이 이야기에서 회개에 대해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주제 중 하나가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충성이 구원과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열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들에서 회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관찰.

제가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멋대로인 백성에게는 회개를 시작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사실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에서 예상했습니다. 모세는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과 씨름했습니다. 그는 그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의 인내심은 여러 번 시험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신명기 30장에 따라 포로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복이 가능성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해한 것을 묘사하면서 그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주의 깊게 반성하면서 먼저 행동해야 할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유배된 이유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주님께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께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회복시키고, 그들의 성품을 변화시켜 그들이 주님께 대한 새로운 헌신을 지속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사건의 패턴과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이야기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돌아가서 신명기 30장의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네 앞에 둔 이 모든 축복과 저주가 네게 임할 때 네가 어디서든지 그것을 마음에 두거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흠으셨느니라

사무엘상 7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북쪽 왕국으로, 그 다음에는 남쪽 왕국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와서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사무엘 상 7장에서 백성이 행한 것 같이 하였나니 우리가 여호와께 구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우리는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우상들을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포로를 돌이키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사 너를 흠으신 모든 나라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라 당신이 그에게 당신이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는 개입하여 당신을 다시 데려올 것입니다.

너희가 천하 가장 먼 땅으로 쫓겨났을지라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모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너희 조상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며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분께서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육체뿐 아니라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도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게 하실 것이며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들에게 이러한 저주를 내리실 것이며 여러분은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명기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이고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회개할 때, 주님은 새 언약을 통해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확립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항상 균형이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 구절과 사무엘서에서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신학적 이해에서는 중생이 믿음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내가 고수하는 달라스 신학교의 교리적 진술은 믿음이 중생보다 앞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그 반대라고 주장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결코 이것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새 언약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영의 은사 없이는 우리는 결코 회개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돈을 요구하고 떠난다. 제멋대로인 아들이에요.

결국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는 이것이 재미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는 깨져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쫓아가지 않았고, 그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마음속으로 가서 마술을 부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의 아들이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있으며 그를 만나러 달려갑니다. 그는 큰 기쁨으로 두 팔을 벌려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과 죄인에게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분은 죄인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시 환영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것을 인식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께 가시적인 방법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 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실 것이며, 우리가 이미 신자라면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선물로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회개가 단체적인 차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 개개인이 함께 같은 죄에 가담했을 때, 회개는 개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개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집단으로서 이러한 특정 죄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적절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며, 우리는 집단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보는 세 번째 요점은 회개가 진실한 동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과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회개의 본질은 변화된 행동이며, 이는 종종 이전 행동과 충성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상징적인 의식과 죄의 고백은 회개를 수반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회개의 형식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행동의 변화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레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의 열매, 의로운 행실을 보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원칙은 회개의 결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신교를 많이 볼 수 없는 현대 서구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회개하고 그분께로 옵니다.

다른 신을 배격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서양이 독특하다. 저 넓고 넓은 세상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향할 때 자신들이 숭배해 왔던 다른 신들을 부인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분야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혼합주의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유일한 참 신인 야훼를 숭배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른 신들도 그와 함께 숭배할 수 있거나 당신이 그들에 대해 믿는 것을 어떻게든 융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 다른 신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가족이 당신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며,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위해 다른 모든 경쟁자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회개는 당신을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좋고, 행복하고, 걱정 없고, 문제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때때로 당신이 회개할 때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한다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정식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누가 나타나나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지원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적들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정말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주제들이 이 장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정 주제를 다루는 좋은 구절입니다. 글썄요, 저는 이스라엘이 사무엘상 7장에서 볼 수 있는 주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때때로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닥치면 때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만큼 신뢰하지 않으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수업에서 사무엘상 8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가르친 Dr. Robert Chisholm입니다. 5과 사무엘상 7장 회개와 승리입니다.